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서울교회 미래의 희망 - 여름에도 열매를 어린이 성경학교, 중 고등부 수련회 (7/23-28)

우리교회의 내일을 이끌어가기 위해 말씀으로 양육되고 있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의 어린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새롭게 되고자 7월23부터 28일까지 성경학교 및 수련회로 모이게 된다.

유치부와 유년부, 초등부는 23일~24일 양일간 본 교회에서 각 단계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고, 특히 초등부는 교회에서 하루

를 자며 평소에 친하기 힘들었던 친구들과 함께 화목함을 배우게 된다.

중, 고등부는 '산음 휴양림'을 수련회 장소로 정하고 이중윤 목사와 담당 교역자를 강사로 모신 가운데 성령으로 새롭게 됨을 간구하게 된다.

학부형이 되는 성도들은 세상학문을 위한 곳보다 자녀들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자.

○○○○공신권 선교지 방문 보고○○○○

먼저 우리의 열심을 선하게 보시고 은혜가운데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허락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9일(월)~13일(금)까지 00국 00구에 신학교를 설립하고자 이중윤 목사와 장로 박철훈, 오정수, 김광신, 이영기 그리고 피택장으로 이복규등 12명이 00국을 방문하였다.

방문팀은 00교회의 Y00목사와 신학교 설립 준비위원으로 수고하는 H00목사 부부와 면담하고 신학교가 개교할 교실을 둘러보았다.

이곳 신학교의 비전은 제00국 200만 교포 선교에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것이다. 현재 수 많은 초소교회를 맡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의 신학의 빈곤으로 이단사상이 속출되고 있어 신학을 올바로 정립할 신학인 설립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있어 지금까지 수많은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이 노력했으나 00국 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나라 교회 지도자인 Y00목사의 결단으로 당분간 인가없이 00교회 내 차치프로그램 형식을 빌어 지난 7월16일(월) 첫 강의를 하기 위해 학생 35명을 이미 선발해 놓은 상황이고 교회를 신학교 교실, 도서관, 기숙사, 사무실로 개조하고 기물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래 신학교는 국가 인정보다 하나님과 교회인정이 더 필요한 것임은 자타가 공인할 뿐 아니라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다.

이번 선교지 답사의 결과, 본 교회는 00신학교를 책임질 H00 목사와 사모를 서울교회 선교사로 임명 파송할 것이며, 신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 이사회를 구성하고 서울교회가 참여할 것이다.

앞으로 시작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서울교회 성도들의 사도 바울과 같은 뜨거운 기도와 헌신이 더욱 요청된다.

* 농촌 전도대에 참여하자 *

천국시민을 양성하는 교회

올 여름 전북 완주의 모악제일교회로 파송되는 농촌 전도대는 지난 19일 2차 답사를 마치고 구체적 준비에 들어가며 전도대원을 교육할 일정을 발표하였다.

봉사대원 교육일정은 총 4차례에 걸쳐 1층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실시되며

- 1차 교육-7월22일 오후 12시10분,
- 2차 교육-7월 29일 오후12시10분,
- 3차 교육-8월 3일 오후7시,
- 4차 교육-8월5일 오후 12시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농촌전도대는 축호, 노방 전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전도와 원활한 봉사를 위해 성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주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개역개정판 마 11:28-30)

"Come to 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from me, for I am gentle and humble in heart,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 souls." (Mt 11:28-30)



공신권 신학교 설립 답사팀- 두만강에서, 북한땅을 말씀으로 열어주실 그 때를 기다리며



대.청부 연합수련회- 각 지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



장년1부 수련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위하여...

단기선교팀 파송 3주전

단기선교팀은 지난 21일(토) 새벽 기도회후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파송일을 앞두고 현지 적응 훈련을 위해 청계산 등반 중추를 하였다.

영적 전쟁터에 파송되기 위하여 4월 부터 시작된 훈련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무덥고 습기가 많은 현지 날씨에 적응하며 고산족인 카렌족 마을에 가기위해 가진 이날 행사를 통해 기초 훈련을 하며 체력을 단련하여 건강하게 선교활동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70인 전도대 태신자명단

박제현, 박상현, 한재성, 이시은, 조화영, 이체열, 이윤규, 임봉균, 송영규, 최원준, 최경미, 정혜정, 민경란, 광근수, 허만희, 이미정, 정은선, 김애라, 최진철, 이성민, 김진영, 장지영, 송하연, 송나현, 노은경, 황원조.

이사야서 강해

네 평강이 강과 같겠고

(이사야 48:17 - 22)



이종운 목사

하나님께서서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가르치시면서 순종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므로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신종(信從)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종 함에 있어 부족하여 제 길을 갔고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것을 탄식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17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순종하면 당장은 손해가 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큰 유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원통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1.하나님은 매사에 복종을 원하신다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17절),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그들은 많은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①)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18절). 히브리어로 살류인 평강은 모든 좋은 것을 말합니다.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복종했다더라면 이스라엘에는 평강이 강물 흐르듯 계속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강과 같았겠다는 말은 끊임없이 주야로 세대를 거듭해서 흘렸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②)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18절).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은 승리자가 되거나 부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 못지 않게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백성이 된다는 것은 승리자가 되거나 부귀를 누리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부귀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많으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 우리의 의가 바닷물처럼 넘쳐흐를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니다. 평강과 의는 서로 떠날 수 없습니다. 평강이 없는 의는 포악으로 흐르기 쉽고 의가 없는 평강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와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③) 지속적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19절).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19절). 본문은 중복강조법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과 의를 계속 누리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유대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2.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목적에 방해꾼이 되지 않도록 하라

여호와와 이스라엘이 그들의 기업을 물수당하게 된 것을 통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유를 남용(miss use)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계획을 중단시켰습니다(18절). 제 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했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 각 개인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매사를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자유를 함당하게 사용할 때 자유는 비로소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자유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갑자기 혼계조의 말이 권면조로 바뀌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해방된 백성에게 바벨론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권면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권력과 부를 누리는 자들은 바벨론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라고 한 것입니다(20절).

70년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었으므로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 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20절) 라고 환호성을 외치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면 사막지대가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야 하므로 유대인들은 이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출애굽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 때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그것을 마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도 너희를 돌보터이니 염려하지 말고 기쁘게 바벨론을 나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목적 수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환호성을 외치면서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여 기업상속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미련한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주신 자유를 자기를 위해 남용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놓치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인간도 못한 자식에게 실망하듯이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실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목적 수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21절). 옛적에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3.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 경경하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

우리의 구속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17절). 거룩은 구별을 뜻하고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기본 윤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하시어 그들을 통해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역사, 시내산에서의 율법 부여, 예언자를 계속해서 보내시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시하셨습니다. 거룩하신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17절). 하나님은 거룩한 훈련과 부성애적 훈계로서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회복의 길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22절). 바벨론에 잔류하는 것,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는 평강이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은 3:2). 요나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가 아니라 200번째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있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거역하면 마지막에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제 돌아와 하나님의 평강과 의가 우리에게 강물처럼 흐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선교지를 다녀와서

이영희권사(3교구)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행 14:17)

지난 7월9일 공산권 신학교 설립 답사팀 파송을 받고 북경을 거쳐 00시에 도착하니 선교사님 내외분과 한국에 유학 오셨던 새가족 청년

한 분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이튿날 도착했을 때의 곳은 날씨와는 달리 다음날 아침은 맑고 쾌청하였습니다. 먼저 함께 예배를 드린 후 장차 우리의 선교지가 될 장소로 가기 위해 버스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창 밖을 내다보니 거리는 온통 우리말 우

리글로 채워져 있어 조선족들의 피와 눈물로 몸부림치며 문화를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56개 소수민족중 하나인 조선족들은 한국문화의 영향력을 많이 받으며 TV시청도 주로 한국방송을 시청한다고 합니다.

특히 놀란 것은 우리가 방문했던 교회는 대륙에서 가장 큰 엄청난 규모였는데 3000명이 한번에 예배드릴 수 있는 대예배실과 소예배실을 포함한 8층의 예배당은 한국교회와 후원금으로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그곳에서만 집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회주의의 온갖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초대교회의 뜨거운 신앙과 열정을 가진 그곳의 성도들을 보면서 풍요와 안정 속에 나태해진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곳을 중심으로 복음화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시고 잘 준비된 훌륭한 목회

자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도가도 끝없이 펼쳐진 대륙, 풍부한 농산물, 그들의 말에 의하면 식량이 자급자족하고도 넘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도우는 것은 어쩌면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걸고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민족이 구원을 받았고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사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복음의 빛을 갠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오늘도 복녘에 험하고 굵주린 동포들이 두만강을 건너 탈출을 시도하지만 공산당원들에게 붙잡혀 간다고 하니 이 일을 통하여 복음화된 통일 조국이 이루어지는 초석이 되고 이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 모두 빛 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근검절약 경건 절제하여 세계선교의 산실이 되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가정부 수련회 후기 전성신(12교구)

밤사이 갑작스런 폭우로 큰 물난리가 났던 주일아침, 우리 새가정부 식구들은 가방에 짐을 한가득 싸 가지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바로 주일저녁 출발하는 새가정부 하계수련회 때문이었지요.

새가정부는 예비신혼부부 커플부터 결혼 5년차 부부까지 모이는 곳 (새가족부와는 다른 곳인거 아시죠?)이기 때문에 아가들도 많답니다. 감사하게도 새가정부에 속한 모든 아가들이 이번 수련회에 함께 했었는데, 낯선 곳이라 그런지 우리 아가들이 좀처럼 잠을 못 이루고 고생을 했습니다. 새아침, 어제의 비구름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밝고 상쾌한 아침에, 계곡에서 물소리를 들으며 부부끼리 Q.T도 하고 찬양도 하며 평화로운 하루를 열었습니다. 2박 3일동안 두 번에 걸친 부부 성경공부 시간에는 부부간에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는 대학·청년부와 새가정부가 같은 집회장소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날 있었던 이종운 목사님의 특강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하는 절대적 사고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위로와 도전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새가정부 식구들은 이날 저녁 별책 마지막 밤을 보내야 했는데, 먼저 목사님의 인도 하에 이루어진 세족식.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어주시며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체를 섬기는 마음으로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목사님께서 먼저 교사님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교사님들은 형제들을, 형제들은 각각 자신의 아내를 씻겨주는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각자의 가슴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에게 전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되었던 부부 찬양경연대회와 성경퀴즈대회. 찬양경연대회에서는 곡 선정 이유를 설명하면서 작은 간증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반성의 기회가 되었던 성경퀴즈대회도 있을 수 없는데, 성경지식 외에도 순간적으로 변덕이는 재치와 순발력이 돋보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입상 가족들이 각각의 우승 상금을 털어 다음날 점심에 근사한 숯불구이 고기를 모두에게 베풀기도 했습니다. 새가정부 식구들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모두 초대해서 맛난 나눔의 장을 열었지요. 새가정부 여름수련회는 마지막 순서까지 그렇게 푸근하고 사랑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로 마무리했습니다.

대학 청년부 연합 수련회 및 새 가정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용기 내시 발은 휴가, 수련회로 충만한 은혜를..”
안재명 <대학부>

이번 수련회는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 이상으로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회사 때문에 2년 동안 수련회를 참석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 기도하고 용기를 내서 마침내 휴가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목적을 2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는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 우선 순위를 두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고 둘째는 미처 다 알고 있지 못한 우리 대학부 후배들과의 깊은 친교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3박 4일간의 수련회 일정 가운데 이 2가지 목적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제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째 목적에 대해서는 이종운 목사님의 말씀으로 구체적인 방법과 확신을 얻었습니다. 모두 8번의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하나 하나가 꼭 저에게 맞추어 주신 말씀 같아서 놀라우면서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가슴 깊이 느끼고 결심한 점도 많았습니다.

둘째로 계획된 프로그램과 각 조에서의 기도모임을

통하여 서로에 대하여 알게되고 위로하면서 대학부 후배들과의 깊은 친교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과 중보 기도의 동반자로서 정말 세상의 어떤 지체들 보다 소중한 우리들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 드립니다. 모처럼 수련회에서 받은 감동과 은혜와 결심과 대학 청년부 형제 자매들의 소중함을 잃지 않게 해 주시고, 모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도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멋진 아들이 되기를... 정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생각없는 세대에서 이제는”
황주원 <청년부>



사나운 수마가 할퀴고 지나간 지 불과 하루만에 우리는 감사하게도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날씨의 여름수련회를 경험했다. 강원도 치악산 자락에서의 나흘 간은 나에게 정말 뜨거운 참회의 시간이었다. 심령을 깨우고 골수를 쫓아내는 듯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세상과 벗하여 아직도 썩어져 가는 구슬을 타파하지 못해 생각 없이 살았던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고 부끄러워 어쩔 줄 몰랐었다. 또 한편으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섬기는 교제의 장에서 마음껏 주님 안에 하나된 형제, 자매로서의 끈끈한 정을 느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수련회 기간 동안 가슴 깊이 깨닫고 감사했다. 충만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가진 전부를 바치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만유의 주시요,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를 찬양할찌어다. 할렐루야!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소은희 <청년부>

대학 청년부가 연합해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된 이번 수련회는 떠나기 전 기대부터가 어느 때와는 달랐다. 하지만 나에게 찾아오는 혼란스런 마음은 주체하기 어



렵게 했다. 새로운 전환의 시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나 자신을 찾기 원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랐던 내 계획과는 달리 힘들게 함께 해야 했던 프로그램들이 나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런 혼돈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자신을 위하여 살게 함이라"였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우리 또래의 문화와 정신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말씀을 접하면서 진정한 내 자신의 현재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이 아닌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신 예수님이 떠오르며 부끄러움을 느꼈다. 나 자신의 내면에서 나를 찾고자 갈증하며 괴로워하던 나는 내 이웃과 형제 자매와 함께 함으로 그 안에서 자유함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해줄 때 내가 도리어 그들에게 큰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꼈다. '그래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이번에도 어김없이 채워주셨구나...' 그 하나님께 간절한 감

사의 기도를 드린다.



"내가 과연 죽을 수 있을까?"

박윤정 <청년부>

사방으로 둘러싸인 산과 계곡, 수영장, 잔디 운동장.. 한 폭의 풍경화에서나 볼 듯한 아름다운 곳, 치악산 자락으로 우리는 수련회를 갔다. 3박 4일 동안 주님 안에서 대학부, 청년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삼 주께서 허락하신 작은 천국을 맛볼 수 있었다.

이중윤 목사님께서 아침저녁으로 선포하신 말씀

을 통해 나는 내가 태어난 이 세대의 근본문제, 즉 자기 중심주의, 물질주의, 상대주의에 물들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이런 세속주의를 버리려면 나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목사님은 말씀하셨다. "죽으면 살리라..."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내가 과연 죽을 수 있을까? 수련회를 마칠 때까지 이 질문은 나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괴로웠다. 그러나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에 위로를 얻었다. 수련회 프로그램 중엔 "독서토론회"도 있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읽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이 시간 얻었던 결론은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께 맡긴다"는 것이었다. 수련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만이 아니라 이런 독서토론회 시간에도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치악산을 내려오며 내 맘엔 이런 소망이 생겼다. "현재 있는 이 세상이 절대 끝이 아니다. 심판이 있는 그 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자. 하나님이 이미 날 위해 큰 일을 행하셨기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일에 더욱 힘쓰자.." 이 수련회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 드린다.

바울 선교회
지원교회 탐방기
**초대교회처럼
은혜가 넘쳤습니다.**
김광홍 집사(1교구)

7월17일은 바울 선교회가 오래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한 농어촌 지원교회인 <승원교회>를 방문하는 날이었다.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교회 앞에 대기중인 버스에 올라타더니 여기 저기서 회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43명이 승차하여 짐 놓을 자리 빠른 만석이었다.

올해 초 새가족부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때 바울 선교회장 유을상 집사님이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새가족부를 찾아와 50대 남성을 대상으로 바울 선교회원을 모집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열성을 보시고 오늘 버스에 타신 분들의 반 이상을 올해 서울교회에 등록한 분들로 채워주셨다.

승원교회는 충남 공주시 유구읍에 위치한 교회로서 축산과 버섯재배를 주업으로 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이며 현재 약 30명이 출석한다고 한다. 승원교회에서 3년째 사역하고 계신 30대 초반의 젊은 김중권 목사님은 농촌교회의 전도대상이 이웃교회를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지역에 함께 호흡하고 뿌리내리는 길 밖에 없으며 특히 남자 성인 중 한 분만이라도 교회에 모시고 오면 다른 분들이 함께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겠는데 그것이 가장 힘든 대목이어서 특별히 기도요청을 하셨다. 몇 주전 예배당과 사택의 지붕에 비가 새어서 지원을 요청하여 회장님과 한 회원이 다녀왔는데 함께 갔던 김운석 회원이 그 다음날 일찍 기술자를 데리고 가 2일 동안 우중에 공사를 말끔히 마치고 돌아온 후로는 비가 전혀 새지 않는다는 감사의 말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은 김운석 회원이 드러내지 않고 선한 일을 감당해준 일로 인

해 모든 회원들이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가족과 전 회원 가족이 함께 풍성한 식사를 나누고 아쉬운 작별을 하며 김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귀한 축복의 기도를 가슴에 새기면서 승원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안고 서울행 버스를 탔다. 도고와 서해대교를 거쳐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은 성령의 충만함과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로 인해 초대교회 교인들이 누렸던 기쁨과 주안에서 하나되는 귀한 체험을 남겼다. 회장님을 비롯한 몇몇 임원들의 헌신과 기도로 놀라운 하루를 보내게 된 것을 감히 숨기지 못하고 자랑하는 것은 많은 선교회, 전도회에도 이같이 초대교회의 은혜가 전파되기를 소원하기 때문이다.



여러 회원들이 자원하여 특별회비를 내어주셨고 여러 가지 기증품을 제공하여 승원교회 성도들과 나누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었고 서울에 도착하고서도 서로 대접하기를 주장하다가 K 집사 덕으로 향하여 교제하며 식탁을 나누는 것도 작은 천국의 연속이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을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입당감사와 축제위원회 10대행사를 위하여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여름철 교회행사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동성

- 오형철 집사 신동기 권사 수지(12교구) 로 이사
- 김중근 집사 최혜순 권사 사당동(5교구)로 이사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이보우 집사 서옥덕 권사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 교회역도 : 한남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대치역 2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 거리